

소재·부품·장비 한자리에

익산시, XR 융합 생태계구축... 신사업 메카로 급부상

익산시는 국내 최고의 XR 기업들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모여 산업간 융합 생태계 구축에 XR(확장현실)·AR(증강현실)·VR(가상현실)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시는 15일 XR(확장현실) 소재·부품·장비 산업분야 지원센터인 XR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전담 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전라북도, 익산시, 사업수행기관 및 XR 관련 기업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XR(Extended Reality) 산업은 홀로그램,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포괄하는 기술로,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미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유망 산업 분야다.

지원센터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아우르는 혼합현실(MR) 기술을 망라해 교육은 물론 헬스케어,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허물고 있는 실감콘텐츠의 소재·부품 산업생태계를 마련하고 경쟁력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구축됐다.

지난 4월 공모에 선정돼 국비 48억원 등 총사업비 89억원원을 확보해 익산역과 접근성이 뛰어난 익산시 창인동 3(빌딩) 3층과 산학 연계기반이 마련된 원광대학교내 건물에 자리잡았다. 전북테크노파크(전북디지털융합센

터)가 주관하고 원광대학교, 한국화학연구원,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지원센터를 운영 하고 있다.

XR 소재·부품 분야 테스트 지원을 위한 장비실, 홍보 및 제품전시실, 기업지원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입주 공간은 원광대학교에 별도의 시설을 구축해 운영 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전국 XR 산업 관련 기업체의 제품성능평가 컨설팅,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 XR 관련 시장동향 및 기술정보 제공, 기술교류회를 통한 네트워킹의 장 마련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익산=이득훈 기자



연말연시를 앞두고 유라시아 기차 조명이 익산 밤하늘을 뽐내며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를 선보인다.

원도심 수놓는 빛의 향연

‘유라시아 기차’ 조명 익산방문객 볼거리 제공 ‘특목’

연말연시를 앞두고 유라시아 기차 조명이 익산 밤하늘을 뽐내며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를 선보인다.

익산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다채로운 빛으로 활기있는 도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중앙동 빛들뜰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익산역 앞에서 KB국민은행간 도로변 가로수에 트리조명, 불조명, 스노우볼 등으로 꾸며진 야간경관 트리는 내년 2월말까지 빛을 밝히며 도심거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특히 도로 중앙에 위치한 기차조형물(유라시아 보석 기차 EJT 3039)과 어울려 멋진 야경을 시민들에게 보여 준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인 역사문화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기차조형물은 ‘유라시아 보석 기차(EJT

3039)’로 새롭게 이름을 바꿨으며, 2000년 유라시아 철도 개통시 유럽 등 39개국을 횡단하는 유라시아 보석 기차를 상징한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익산의 대도양의 의지를 보여주며 기차 조형물의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해 LED 바퀴 굴림과 기차 옆면부를 LED로 새롭게 연출했다. 기차 전면부에 익산역을 비추는 투광등을 설치해 익산역을 향해 보석을 싣고 달리는 기차를 형상화했다.

시는 익산역 방문객들에게 호남 최대 철도 교통 허브이자 새만금과 환황해권 연결은 물론 유라시아 대륙 횡단 열차의 출발점이 될 익산의 역사와 미래 비전을 LED 조명으로 비추며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익산을 상징하는 활영 명소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500억 매출

시·탐마루조공 협조체계 성과 당초 목표치 초과

익산시와 탐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 농산물에 대해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실시한 결과, 최고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10일 기준 매출액 500억 원으로 당초 목표치 45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통합마케팅 조직 익산탐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탐마루조공)은 지난해 8월 북부청사로 이전 후 행정과 유기적 연계로 온·오프라인에서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농산물 공동브랜드 탐마루를 널리 알리며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했다.

특히 시와 탐마루조공은 농가조직화에 집중한 결과 수박을 포함한 고구마, 양파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철저한

공동선별로 탐마루 브랜드 이미지에 걸맞는 농산물을 출하함으로써 대외협상력을 강화했으며 딸기 조직화 부분을 강화하면서 지속적인 매출 증대로 500억원의 매출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

향후 2022년도에는 530억원 매출액을 목표로 블루베리, 마 등에 대한 조직화 부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탐마루 농산물은 철저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공동선별·상품화 과정을 거쳐 대형유통업체, 도매시장 등 전국 각지에 공급 중이다. 특히 이커머스(쿠팡, 마켓컬리, 위메프), 탐마루 쇼룸(www.tpmare.com)에서 수박, 방울토마토, 고구마 품목을 선보이며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고 수도권 대형 백화점 입점 등 신규시장 개척을 통해

매출 성장에 기여하였다.

또한 지난 8월 익산역 역내 광고를 시작으로 주 판매지역인 수도권에서 역내(수서역) 비대면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수도권 판로확대를 위한 특판행사를 진행하여 수도권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낸 바 있다.

익산탐마루조공 김종길 대표는 “규모화·조직화된 공신회를 통한 물량 공급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전국 어디서나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농산물을 출하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대로 농가소득 증진과 농업발전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원예산업 종합계획 이행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A등급)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 보건소, 장애인 대상 함께 사는 세상 ‘맞춤형 재활 서비스’

군산시 보건소는 지역사회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 개선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통해 사회로의 원활한 복귀를 돕기 위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보건소 내 재활치료실을 확장해 더 많은 대상자에게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재활치료실 이용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재활치료실을 방문하지 못하는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을 위해 물리치료사와 직업치료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장애 유형별·상태별 1:1 맞춤형 운동·소도구를 활용한 정신·자극운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운동 습관 형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리적으로 지친 장애인을 위해 선유도에서 유람선을 타고 산책을 하는 ‘힐링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대상자들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소

하고 재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 원예와 공예 수업을 진행해 촉각 자극과 소근육 발달 등 신체적 기능을 향상하고 내면에 있는 자신감을 회복해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을 주는 성과를 얻었다.

12월에는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기저귀 지원 사업을 진행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군산=한영봉 기자

익산시, 3년 연속 투자유치 ‘최우수 기관’ 선정

익산시가 3년 연속 ‘도내 투자유치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3회 연속 전라북도 주관으로 실시된 ‘투자유치 우수기관 선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투자협약 실적, 투자 및 고용이행, 신규 고용규모 등 올해 전반적인 투자유치 활동 사항에 대해 평가에 따른 것이다.

시는 투자유치 활동 및 투자이행률 분야 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

분양률 88.4%를 돌파한 제3·4일반산단은 한소아계약, 원광계약, 에이치에스 머티리얼즈 등 착공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입주업체 가동이 본격화된면 인구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3·4일반산단,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주요 산단에 올 한 해 동안 타코마테크놀로지, 플루론 등 33개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총 200여개 기업이 분양을 완료했다.

제2일반산단단지 두산퓨얼셀 1,100여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투자가 이루어져 8천여명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두산퓨얼셀 기업유치는 탄소중립 기조에 맞춰 새로운 대체 에너지로 떠오르는 수소경제산업생태계로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익산=이득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대중교통 시책 평가 우수기관 표창

군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16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대중교통 시책 평가’에서 우수 시책 지자체로 선정돼 ‘대중교통 시책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대중교통 시책평가’는 경영·서비스 및 시책평가 결과 우수기관 등에 장관표창 수여를 통해 대중교통의 전반적인 안전과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해 왔다.

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마다 실시한다.

평가 내용은 전국 16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시책평가 시행지침에서 규정된 4개 부문, 10개 항목, 19개 지표다. /군산=한영봉 기자

익산시, 정부가 인정한 ‘한의약 건강증진’ 메카

익산시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학을 접목해’ 한방건강증진 메카’로 정부에 인정을 받았다.

시는 올해 지역사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장관상은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우수 운영 사례와 건강 증진 효과 등을 심의해 선정됐다.

익산시보건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취약계층인 입산부를 대상으로 대면·비대면을 병행한 건강관리 교육을 하는 등 입산과 출산에 대한 인식 수준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한방 증진사업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보건소는 도내 최초 한방안치료를 통해 최근 3년간 지원 대상자 기준 31.2% 임신 성공률 기록과 산후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질환에 대한 의료 지원 등 임신에서 출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 체계 확보 등 성과를 보여줬다.

/익산=이득훈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